



광주·전남 4개단체, '사랑의 헌혈 릴레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지난 17일 목포시·곡성군·보성군과 위아원 광주지부가 '사랑의 헌혈 릴레이'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4개 단체 직원과 시·군민 등 약 150명이 헌혈과 헌혈캠페인에 참여하며 지역의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힘썼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헌혈릴레이에 동참해 준 4개 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릴레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생명안전과 생명나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시·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혈액보유량은 5.3일분(△O형 4.3일분 △A형 5.3일분 △B형 8.1일분 △AB형 2.0일분)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인 5일을 상회하지만, O형과 AB형은 기준에 크게 미달돼 시·도민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준명 기자**



광주 남부소방, 명절 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광주 남부소방은 지난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남구 봉선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과 지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동안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주요 내용은 '상인 안전 관리 애로 사항 청취',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 점검', '화재 예방 위한 안전 수칙 준수 당부' 등이다. 특히 소화기와 소화설비 작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충훈 남부소방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인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사)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제80회 정기모임·시산들제

(사)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은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송산유원지 일원에서 제80회 정기모임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날 모임 회원 50여명은 빛고을산들길 구간인 송산유원지 주차장에서 반환점인 청등보교까지 걸은 뒤, 이곳에서 시산들제를 개최해 새해 건강과 행복을 염원했다.

박성수 (사)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이

사장은 "올 한해 무탈하게 산들길을 걸을 수 있도록 시산들제를 거행하면서 회원들의 건강을 기원했다"며 "올해도 회원 모두 걷기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사)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은 광주 둘레길인 빛고을산들길 81km를 구간별로 나눠 매일 정기적으로 걷기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국립광주과학관-국립해양과학관, 업무협약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17일 국립해양과학관과 대국민 과학문화 서비스 증대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 관장, 김의철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시콘텐츠 교류를 통한 다양한 주제 및 연출의 전시 프로그램 대국민 제공 △양 기관이 개발·운영 중인 과학체험 프로그램 및 교구재 상호교류와 신규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통한 과학문화서비스 고도화 추진 △관람객·이용객 대상 상호간 홍보를 통한 상생기반 마련 및 과학 문화 접점 증대 등이다.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특징점을 융합한 고품질의 과학문화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경총, 새해 첫 금요일조찬포럼 '성료'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는 지난 17일 홀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웃음강사 1호 박인옥 박사를 초청해 '행복한 조직을 위한 소통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153명이 참석한 가운데 1672회 금요일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사진)

박 박사는 "소통의 기술로 첫째, 웃어야 통한다. 둘째, 밝아야 통한다. 셋째, 차이를 인정해야 통한다"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했다.

그는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지만 실상 길게 들어가 보면 사는 것은 비슷하다"면서 "내 주변 사람을 긍정적으로 봐야 행복할 수 있다. 조직을 관리하는 데도 다른 회사 직원과 비교를 통해 내 직원의 부족한 점을 찾기보다는 장점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교통공사, 역사 화재 진화 승객에 '용감한 시민상'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역사 내 화재 발생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진화에 나서 피해 확산을 막은 시민 전대성(35)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

19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8분경 귀가를 위해 동구 금남로4가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승강장 내 쓰레기통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곧바로 근처의 소화기로 진화에 나서 화재 확산을 막았다.

이날 전씨가 신속하게 초동 조치를 실시하는 동안 야간 근무 중이던 역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는 4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금남로4가역은

수송 수요가 높고 역사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전씨의 차분하고 용감한 행동으로 자칫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을 초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한 전씨는 "평소 익혀두었던 소화기 사용법이 화재 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처럼 행동했을 것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직원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전대성씨의 자발적인 초기 진화로 더 큰 화재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전씨의 용감하고 의로운 행동은 광주 시민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북부소방, 설 맞이 자율봉사활동 실시

광주 북부소방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엠마우스 복지관을 방문해 자율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엠마우스복지관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직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안전한 설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으며,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비상시 행동 요령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황인 북부소방서장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따뜻하고 온정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화정신협, 신협 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전달

화정신협은 신협 사회공헌재단에 3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16일 화정신협에서 개최됐으며 화정신협 김성숙 이사장, 문은호 상임이사, 박재선 상무, 신협중앙회 김영하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화정신협은 △지역 내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난방용품 지원 △열악한 환경의 아동·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벽지, 장판지 시공 및 주거 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및 기부를 통해 신협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김성숙 화정신협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는 화정신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건협 광주전남지부, 함평군청에 사랑의 성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6일 함평군청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

19일 건협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탁됐으며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

정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성금 기탁 외에도 지역사회와의 여러기관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건교육, 사회공헌 건강검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 **노병하 기자**